

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, 이스라엘 신용등급 상향조정

□ Moody's,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

- 지난 4월 17일, Moody's는 양호한 경제성장, 대외채무 감소 등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'A2'에서 'A1'으로 상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을 '안정적(Stable)'로 평가하였음.
- * 이에 앞서 S&P는 '07년 11월,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'A-'에서 'A'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바 있으며, Fitch도 금년 2월 기존의 'A-'에서 'A'로 상향조정하고 등급전망은 '안정적(Stable)' 유지
- 이에 따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등급은 모두 동일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으나, OECD는 상기 기관들보다는 다소 낮은 3등급을 부여하고 있음.

<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>

- * S&P : A- → A (2007. 11.27) 상향조정
- * Fitch : A- → A (2008. 2.11) 상향조정
- * Moody's : A2 → A1 (2008. 4.17) 상향조정
- * OECD : 3등급 (2006. 10) → 3등급 (2007. 10) 유지

□ **견실한 경제성장, 대외채무구조 개선이 등급 상향의 주요 요인**

- 이스라엘은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 성장, IT 중심의 수출 증가세 지속, 양호한 물가 수준 등에 힘입어 최근 4년 동안 5%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음.
- * Moody's는 이스라엘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첨단 기술력, 높은 생활수준 ('07년 1인당 GDP: 22,472달러)을 높이 평가하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머징 마켓이 아님을 강조
- * S&P는 이스라엘이 '06년 레바논전쟁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시현한 점을 반영, 외부충격에 저항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높이 평가
- 또한, 그동안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걸림돌이었던 만성적 재정적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개혁 및 긴축정책 추진으로 '03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'07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기록한 바 있으며, '04년 GDP의 63.6%에 달하던 외채비중도 정부의 지속적인 외채상환 노력으로 '07년에는 55.6%까지 감소하였음.
- * Fitch는 이스라엘의 정부 채무 비중이 '04년 총 GDP의 102% 수준에서 '07년말 80%로 최근 4년 동안 20% 포인트 감소하였음을 강조
- * 외채상환비율(D.S.R.): 12.7%('03) → 11.7%('05) → 10.4%('07)
- 아울러,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무상원조 역시 이스라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킨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.

<표>

주요 경제 지표

단위 : %

구 분	2004	2005	2006	2007	2008 ^e
경 제 성 장 률	5.2	5.3	5.2	5.3	3.6
재 정 수 지 / GDP	-3.7	-1.8	-0.9	0.0	-1.4
총 외 채 잔 액 / GDP	63.6	59.2	61.3	55.6	47.1

자료: IMF, EIU.

□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, 현 등급 유지가능성 높아

-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별도로, S&P와 Moody's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간의 마찰, 이란의 핵 프로그램 향방 등이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였음.
- 그러나 최근 이란,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정세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제적, 군사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, 단기간 내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아울러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회복,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 확대 등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, 외채, 물가,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, 당분간 현 등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전문연구원 김예리(☎02-3779-6654)

E-mail : yeliekim@koreaexim.go.kr